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 검역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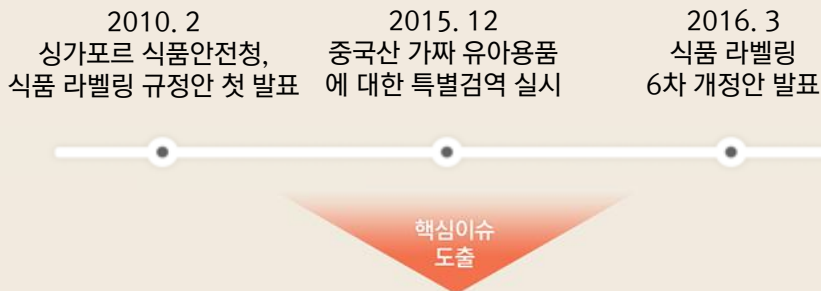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싱가포르, 라벨링, 식품, 규정, 개정, 검역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싱가포르 식품안전청, 식품 라벨링 7차 개정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싱가포르 식품안전청, 식품 라벨링 7차 개정안 발표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이 2010년 처음 발표한 식품 라벨링 규정에 대해 4월 10일 7차 개정안을 발표했다. 동 개정안은 포장식품의 유통기한, 특수목적 식품, 영양 성분 표기법 수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포장식품은 유제품, 밀가루, 샐러드 드레싱, 초콜릿, 시리얼 등이며, 유통기한은 글자 크기가 3mm 이상인 문자로 포장지에 양각 처리를 하거나 영구적으로 표기돼야 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보관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당 식품의 보관 장소를 라벨 또는 포장지에 기재해야 한다. 한편, 무설탕 식품, 저칼로리 식품, 유아용 식품과 같은 특수 목적 식품은 목적 및 적합성도 라벨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에 영양강조표시나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다면, 영양성분표 라벨이 필요하다. 필수 표기 항목은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영양성분이 식품의 주요 영양강조표시 성분이면 이 또한 기재해야 한다.

싱가포르 식품안전청에 따르면, 싱가포르 식료품의 수입의존도는 90%로 매우 높아 수입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제품, 유아식품, 생수, 신선과일 등 건강과 연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역을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번 개정안은 자국 내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조치보다 안전과 위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싱가פור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식품 중 10%만을 생산하는 국가로, 식품 수입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다. 또한, 모든 수입 식품과 음료(알코올 음료 제외)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 및 이전에 식품안전평가 기준을 미달했던 품목에 대해 엄격한 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식품 라벨링 개정은 자국 내수산업을 보호한 것이라기 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까지 싱가포르에서 한국산 식품이 라벨링 지침 미준수로 통관을 거부당한 적은 없지만, 식품 수입원을 다양하게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 시장을 대비해 사전에 이를 잘 검토하여 시간과 비용을 미리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